

영국 명문대 유학생 등록금 폭탄

향후 4년간 29% 인상 ... 케임브리지 의대 6년 과정 최소 £450,000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 향후 4년간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등록금을 평균 29%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유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영국 주요 명문 대학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대학 연합체인 러셀그룹(Russell Group) 등 최고 수준 대학들의 외국인 학부생 평균 연간 등록금은 향후 4년간 약 £34,700으로 2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된 등록금을 내는 영국 국내 학생들과 달리 유학생들의 학비는 전공과 대학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의학 계열이다. 올가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6년 재학기간 등록금으로만 최소 £456,000(약 7억 9,4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본지 다음호 발행 6월 25일



옥스퍼드 대학교 역시 6년 의대 과정에 최소 £343,950(약 6억 원)이 필요하다. 일부 이공계 및 컴퓨터 공학 등의 학비도 최근 몇 년새 67% 급등해 연간 등록금이 £62,820(약 1억 1,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대학들이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영국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랫동안 동결되면서 발생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현재 등록금은 £9,535.

영국 국내 학생들의 올가을 등록금은 최대 £9,790로 책정되었다. 노동당 정부가 오랜 동결 조치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인상된 수치이지만, 2012

년에 비하면 £790 오른 수준이다. 사실상 국내 학생을 가르칠수록 대학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편, 대학들의 이러한 고육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영국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1인당 연간 £925의 '유학생 분담금(International Levy)'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국 고등교육 규제기관의 공식 영향 평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만 유학생 등록 수가 14,000명 감소해 대학가 전체적으로 약 2억 7천만 파운드(약 4,700만 원)의 재정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됐다. 편집부

“대학 졸업장, 돈·시간 낭비”

영국인 3명 중 1명 “대학 갈 필요 없다”



최근 영국에서는 대학 교육의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그리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대학 학위의 실질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조사기관인 영국 사회태도(BSA) 조사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들인 시간과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14%에서 2025년 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대졸자가 비대졸자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36%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하게 확대된 영국의 고등교육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1983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6%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6% 수준까지 상승했다. 대학생 수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졸자가 늘어난 만큼 취업 경쟁은 치열해졌고 학위가 갖는 희소성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영국 고등교육계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불신과 AI 시대의 고용 불안이 대학 교육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미 재정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경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편집부

한국전 참전 용사 보은의 날 행사 (32면 참조)

일시 : 6월 27일 (토) 11:00 ■ 장소 : St Paul's Gardens

작가 김주혜 북 토크 2 6월 20일 오후 3시 한인종합회관	김흥종 주영대사 2 세인트제임스궁에서 신임장 제정	아이러브스테이지 22 실제같은 아바타 공연 한국에 도입?	박상도 목사 28 잃어버린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②	인터뷰 31 김기영 KPOP 어워드 조직위원장
--------------------------------------	--------------------------------	------------------------------------	-----------------------------------	------------------------------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SB 모기지
 Financial Services
 07904 571 782
 baesbuk@gmail.com
 WhatsApp available 23면 참조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목요일 (점심휴무) 17~23
 화요일은 쉽니다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십시오!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티크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미소 하우스
 민박/하숙, 뉴몰든역 3분 고급 단독 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Wifi, 조식 석식 한식
 일인 욕실룸 / 넓은 가족룸, 카드결제 가능
 카톡 ID : misohouse
0782 333 6807

트리스톤 홀세일
 육류 도매 / 식자재 전문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07413 185 354
 3면 참조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07842 758 697
 네오돔 3000 기우스 동전패치
£15
 Made in Korea

A3 MOTORZ
 튜닝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도색 전문
 보험·수리
 MOT 대행
 020 8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Surbiton KT5 8EJ

“찰스3세, 방산 등 한영 간 산업협력·무역에 관심”

김흥종 대사, 세인트제임스궁에서 신임장 제정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한국과 영국의 방위산업을 비롯한 산업 협력과 무역 증진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표시했다고 김흥종 신임 주영 대사가 4일 밝혔다.

지난달 부임한 김 대사는 이날 런던에 있는 왕궁 중 하나인 세인트제임스궁에서 찰스 3세를 만나 신임장을 제정하고 나서 관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해 이처럼 말했다.

신임장 제정은 새로 부임한 각국 대사가 자국 정상이 서명한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영국 주재 대사는 영국 국가원수인 국왕에게 이를 제출한다. 김 대사는 영국의 관례에 따라 왕실 마차를 타고 세인트제임스궁까지 이동했다.

김 대사는 한영 수교 145주년 겸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시점인 2028년에 찰스 3세가 한국에 다시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찰스 3세

는 왕세자 시절이던 1992년에 다이애나 당시 왕세자빈과 함께 방한한 적이 있다.

이에 찰스 3세는 “아, 좋죠. 그때 내가 80세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이라고 농담을 섞어 답했다고 한다. 찰스 3세는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한동안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를 재개하고 해외 방문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민 방문해 존철살인의 유머를 선보였다.

김 대사는 “찰스 3세가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에 오면 좋겠다는 말을 두 차례나 했다”고도 전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민 방문한 바 있다.

김 대사는 “찰스 3세가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며 “방산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롤스로이스가 방산 부문에서 좋은 제품을 만드

는 유망한 기업이라는 말도 꺼냈다”고 전했다. 영국 방산 기업을 알리면서 양국간 산업 협력을 늘리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찰스 3세의 주요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체에너지 산업도 화제에 올랐다. 김 대사는 “찰스 3세가 지난해 2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 법인) 세아윈드의 해상풍력 모노파일 공장을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지금도 국왕의 격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드리자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찰스 3세가 그런 산업 협력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은 아주 인상적이고 훌륭한 나라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빨리 발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고 김 대사는 전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4일 런던 세인트제임스궁에서 열린 김흥종 신임 주영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대사는 2002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PI)에 일하면서 2020~2023년 원장을 지냈고, 외교통상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통상협정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다.

김 대사는 “방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구체화해야 한다”며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 많이 알리고 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또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런던뿐 아니라 지역 동포사회도 많이 만나면서 접촉면을 확대하고, 동포들의 자부심을 늘리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연합뉴스

BOOK TALK City of Night Birds: 밤새들의 도시

2024 톨스토이 문학상
작가 김주혜 초청 북토크

일시: 2026. 6. 20 3:00 PM

장소: 한인종합회관

110 Coombe Lane,
Raynes Park, London
SW20 0AY

Streaming on Zoom
ID: 980 980 9876
passcod: 123456

주최: 재영한인여성회(코원UK)

“아동 음란물 막아라”

영국 정부, 애플·구글 압박 … 과징금·형사 책임 물을 수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촬영과 온라인 공유를 책임지고 막으라고 압박했다.

8일 BBC 방송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미성년자 나체 이미지를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내장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은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나체 이미지를 촬영, 공유, 조회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각 기업이 3개월 안에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치 실패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테크위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기술 기업들에 아동의 성적 이미지 송수신을 방지하는 기기 통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에 이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는 대응해 법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라면 가만히 있는 건 옵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착취범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성적 이미지가 확산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또한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효율적이고 사생활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해법을 찾아 영국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하라고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해 왔으며 호주와 같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스타머 정부가 16세 미만 SNS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해외동포들을 위한 대림성모병원 해외종합건강검진



19년간의 해외검진 노하우 | 최고의 의료진 | 최첨단 의료장비 | 부담없는 비용

해외종합검진 혜택

- ① 로얄종합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제공

당일종합검진

남 98만원 | 여 111만원 (40세 미만) 113만원 (40세 이상)

의사 상담(검사 전후), inbody, 안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구강검사, 위내시경(수면 선택),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test), 흉부X-선검사, 골밀도, 저선량흉부CT, 두부CT, 뇌동맥류 위험 평가,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골반초음파(여), 유방촬영(여 40세 이상), 유방초음파(여), 자궁경부세포진(여)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5종(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여), 전립선암(남)), 갑상선기능, 빈혈, 간염검사(A형/B형/C형), 간기능, 담관검사,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칼슘, 혈액형검사, 전해질검사, 감염 및 성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질환, 심근질환, 혈액학검사 및 백혈구 백분율, 소변검사 10종

입원종합검진

남 138만원 | 여 151만원 (40세 미만) 153만원 (40세 이상)

당일검진 포함

+ 폐기능, 복부비만CT, 대장내시경, 인유두종바이러스(여)
+ 혈액추가(빈혈정밀, 비타민D) + 비타민B & 비타민C(영양제) 주사 제공 + 1인실 제공

로얄종합검진

남 285만원 | 여 298만원 (40세 미만) 300만원 (40세 이상)

입원검진 포함

+ 뇌MRI, 뇌MRA(두부CT 대체), 척추 MRI(경추, 흉추, 요추, 천추)
+ 복부CT, 심장CT(관상동맥/조영제)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 혈액추가(심혈관질환)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홈페이지: www.drh.co.kr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57

종합검진 상담 및 예약 안내

건강증진센터	대표전화	+82-(0)2-829-9359
	HP	+82-(0)10-2882-7205
	Kakao ID	drh_check
	E-mail	2024091@drh.co.kr

‘미국식 과소비’ 에어컨 거부하던 영국, 폭염에 ‘항복’

급증하는 수요에 전력난 우려 ... 태양광 발전 많아도 적어도 문제

런던 남부에 사는 엘리 채프먼씨는 지난 26일 집 안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보통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데, 그날은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나더라”며 “올 여름 더위가 심각할 것 같아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걱정”이라고 했다.

지난주 런던의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1944년 이래 가장 높은 5월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을 갖추지 않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영국 주택 중 5% 미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최신 주택이라 하더라도 냉방 시설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보수당은 2021년 개정된 건축 규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해당 규정이 벽 단열 및 환기 극대화를 위한 창문 배치 등을 강조하고, 냉방 전략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발업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건설업자들이 다른 조치를 먼저 다 마친 후에 추가 조치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

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발사들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T는 이런 태도가 환경에 대한 우려나 전력 문제 외에도 “미국식 과소비에 대한 거부감과 영국 특유의 절제된 태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년 무더위가 더 일찍, 더 강하게 찾아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기후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CCC)는 최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기후 변화가 더 진행될 경우 영국 주택 재고의 22%가 에어컨과 같은 능동적 냉방 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로버트 어빙번스의 앤토니 안토니우 최고경영자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름이 두어 번만 더 지나면 에어컨 문제가 정책 의제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FT에 밝혔다.

가디언은 에어컨을 보유한 영국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지난 26일 런던 그라나리 스퀘어에서 시민들이 분수 인근에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가정의 수가 400만 가구를 기록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여름에는 가구별로 주당 4시간가량 에어컨을 사용하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하루 9시간 이상 사용하게 돼 주당 전기 요금이 약 3파운드(약 6000원)에서 42파운드(약 8만4000원)로 급증한다.

에너지 전문 웹사이트 ‘유스위치(Uswitch)’의 나탈리 매티는 “40W 선풍기의 시간당 운영 비용이 1펜스

미만인 반면, 2.7kW 에어컨 시스템은 66펜스가 들어 비교할 수 없이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

비용 문제 때문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는 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폭염이 발생하면 태양광 전력이 넘쳐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는 낮 시간대 전기값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025년 6월 폭염 기간 EU의 태양광

발전량은 월간 기록인 45TWh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였다.

하지만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덕분에 낮아진 전력 가격은 주간 전력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수익을 감소시킨다.

또 폭염에 대개 동반되는 공기 정체 현상은 풍력 발전량을 급감시켜 해가 지고 태양광 발전량이 0이 되면 전기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해 6월 유럽 폭염 당시 낮 시간대에 마이너스 전기값을 기록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저녁 시간대 전력 가격이 시간당 500 유로까지 치솟았다.

냉각수가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가동도 제한된다. 지난해 폭염 기간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18곳 중 17곳이 발전 용량을 감축했다. 엠버는 보고서를 통해 “폭염이 더 빈번해지고 태양광 발전 용량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Hanaro Express
전세계 특송 전문

하나로 익스프레스

www.hanaroexpressuk.com

Tel: +44) 0208 949 6923

Mobile: +44) 07940 554 685

Kakao Talk: hanaroexpress (24 상담가능)

Email: hanaroexpressuk@gmail.com

Address: 29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UK [KT3 4BY]

- EU/UK 정식 수출입 면허 허가 업체 (EORI Number 보유)
- VAT 등록 업체 (사업자에 한하여 부가세 20% 환급 가능)
- 카드결제 가능
- 전시회 관련, 미술작품 (그림, 포트폴리오, 조소)

김준영의 I Love 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너무 놀라운 실제같은 아바타 공연 'ABBA Voyage' 한국에 도입?

런던 동부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에 자리한 ABBA Arena에서 공연 중인 ABBA Voyage는 흔히 '홀로그램 콘서트'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프로젝트다. 디지털 아바타, 라이브 밴드, 전용 공연장, 관광 콘텐츠, 머천다이즈, 장기 상실 운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 비즈니스 모델이다.

ABBA Voyage는 2022년 개막 이후 영국 경제에 약 20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의 매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래서 한국 공연계가 이 사례를 주목하고 한국의 전현직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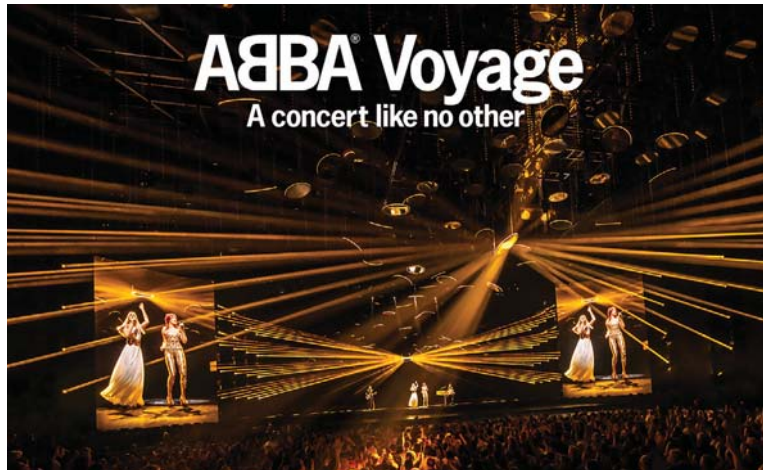
ABBA Voyage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음악이다. 'Dancing Queen', 'Mamma Mia', 'Waterloo', 'The Winner Takes It All' 같은 곡들은 특정 팬덤을 넘어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에 가깝다. 관객은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저장된 음악적 순간을 다시 만나러 온다. 공연장은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재경험하는 장소가 된다.

희소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만약

ABBA가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하고 있다면 ABBA Voyage는 단순한 대체재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객은 더 이상 전성기 시절의 ABBA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불가능성이 공연의 가치를 만든다. 관객은 '가짜 ABBA'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만남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다.

실제 공연을 본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술보다 현장감이다. 그 중심에는 라이브 밴드가 있다. 무대 위에는 실제 연주자들이 존재하고 공연에 리듬과 에너지, 호흡을 부여한다. 디지털 아바타가 시각적 중심이라면 라이브 밴드는 공연의 심장이다. 덕분에 관객은 거대한 영상 상영이 아니라 실제 콘서트에 참석한 듯한 감각을 경험한다. 디지털 기술과 라이브 공연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셈이다.

전용 공연장도 빼놓을 수 없다. ABBA Voyage는 일반 공연장에 장비를 설치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ABBA Arena 자체가 공연을 위해 설계됐다. 음향, 조명, 객석 시야, 관객 동선, 입장 경험, 머천다이즈 판매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돼 있다. 관객은 티켓 한 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Dancing Queen, ABBA Voyage, ABBA Arena, London © Johan Persson

경험을 소비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투어 공연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한국 공연계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홀로그램 공연을 만들자'가 아니다. 진짜 교훈은 강력한 음악 IP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라이브 공연, 전용 공간, 관광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만약 이 모델을 쇼핑몰 체험관이나 이벤트성 콘텐츠 수준으로 축소한다면 관객은 그것을 프리미엄 공연이 아니라 '신기한 영상 체험'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공연장을 나오는 관객이 "기술은 좋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콘서트를 본 것 같

다"고 말해야 성공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가능할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기술과 콘서트 제작 역량, 팬덤 비즈니스 경험을 갖추고 있다. 진짜 과제는 IP와 사업 구조다.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는 아티스트 선정이다. ABBA는 특정 팬층만의 그룹이 아니다. 중장년층의 추억이자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한 글로벌 문화 자산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확장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필요하다. 단순히 팬덤 규모가 큰 그룹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음악적 기억이 있어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K-pop 그룹이라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실제

콘서트를 볼 수 있는데 왜 디지털 버전을 봐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해체된 그룹, 원년 멤버 재결합이 어려운 팀, 무대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레전드 가수처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공연'이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이다. 'AI 콘서트'나 '홀로그램 공연'이라는 표현은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관객이 구매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음악적 순간을 다시 만나는 공연", 혹은 "한국 대중음악의 기억을 오늘의 무대로 되살리는 상설 공연"에 가까울 것이다.

ABBA Voyage는 가수를 복제한 공연이 아니다. 관객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ABBA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프로젝트다. 한국형 모델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음악, 추억, 공간, 팬덤, 관광을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야 한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음악적 기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공연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다. ABBA Voyage는 런던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제 한국 공연계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억을 공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국 창작 뮤지컬 '더 라스트맨', 런던 진출의 교훈

영국 런던 오프웨스트엔드(Off-West End) 무대에 당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국 창작 1인 뮤지컬 <더 라스트맨(The Last Man)>이 현지 관객 동원에 난항을 겪으며 씩씩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폐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평균 관객 점유율 20% 미만'이라는 관측은 아시아 창작 뮤지컬의 영미권 진출이 지닌 높은 벽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식적인 전체 실관객 점유율(Box Office)이 실시간으로 발표되지는 않으나, 현지 예매장 현황과 공연계 내부 동향을 종합하면 흥행 부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는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호평 받았던 이 작품이 런던 한복판에서 외면받은 원인으로서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공간이 주는 몰입감의 실패다. <더 라스트맨>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반지하(Banjih) 벙커에 고립된 생존자의 밀실 공포와 지독한 고독을 다루는 1인극이다. 그러나 공연이 올라간 서덕 플레이하우스 엘리펀트(Southwark Playhouse Elephant) 극장은 1인

극의 폐쇄성을 살리기에는 310석으로 물리적인 규모가 컸다.

영국의 공연 리뷰 매체인 에브리씽 씨어터(Everything Theatre)는 "스마트폰이나 작은 화면에서 먹힐 법한 폐쇄공포와 간헐적 전전떨림"이 큰 공간에서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며 극장 선택과 무대 연출의 괴리를 꼬집었다.

문화적 맥락의 차이 역시 흥행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 특유의 청년 고립이나 고독사 같은 기저의 묵직한 테마가 영국 관객들에게는 그저 개연성이 부족한 좀비 생존물로 비쳐다는 평가다. 코미디인지 진지한 스릴러인지 방향성을 알기 힘들다"며 아쉬움도 있었다.

현지 평단은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이유나, 문 밖 좀비들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Stakes)이 객석까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통했던 감정선이 현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영미권 공연 시장 특유의 단계적 진출(Step-by-step) 과정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웨스트엔드나 오프웨스트엔드에 새로운

창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지 배우 및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하는 몇년에 걸친 리딩(Reading), 소규모 워크숍 및 쇼케이스를 거쳐 본 공연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본을 수정하고 현지 관객의 반응을 테스트해야 하지만, <더 라스트맨>은 영국인 드라마티그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현지화 테스트 베드를 거쳤다가엔 미흡한 상태로 비교적 큰 오프웨스트엔드 극장에서 한 달 이상의 공연을 바로 강행했다. 현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입 전략이 다소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라스트맨>의 런던 진출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한국 창작 뮤지컬계에 유의미한 발자취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흥행 부진은 한국에서의 성공 공식이 세계 무대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 특히 런던과 뉴욕 같은 공연의 중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현지화된 인큐베이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더 라스트맨>이 남긴 쓰라린 교훈이 향후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지점이다.

영국 공연계: AI는 혁명이 아니라 진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공연예술계의 불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 공연산업 전문가 클리프 플루엣(Cliff Fluet)은 더 스테이지(The Stage) 기고문에서 'AI는 혁명이 아니라 진화'라고 주장했다. 공연예술은 인쇄술, 녹음, 방송, 인터넷을 모두 견뎌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확장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핵심은 낙관론이 아니다. '생존은 번영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중요하다. 폭풍이 한 번 지나가는 것이라면 버티면 된다. 하지만 폭풍이 머물러 새로운 기후가 된다면, 예술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AI 학습데이터, 창작물 저작권 등록 기준, 권리자와 개발사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저작권과 보상 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루엣은 1990년대 인터넷 등장 당시 음악산업의 실패를 예로 든다.

업계는 막고, 금지하고, 소송하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디지털 유통의 주도권을 잃었다. 음악은 살아남았지만 산업 구조는 바뀌었다.

그는 AI도 예술의 본질보다 제작, 유통, 라이선스, 보상 방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결국 공연예술계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가 아니다. AI는 이미 티켓 판매 알고리즘, 번역, 영상 복원, 홍보 문구 작성, 음향-영상 제작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 출처 표시, 동의, 공정한 보상,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다.

AI는 예술을 끝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노동 조건과 수익 구조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도, 무조건적 환영도 아니다. 공연예술계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폭풍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그 날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할 때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수술실 CCTV 의무화 2년, 환자 절반은 몰라

실제 촬영한 환자도 19% 불과... 주된 촬영 이유는 '의료사고 대비' 의사는 신뢰 붕괴 우려... "의무화만 아니었다면 설치 안 했을 것"

2023년 9월 이후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운영이 의무가 됐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만 실제 CCTV로 수술을 촬영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75%는 의료사고와 과실에 대비하고자 촬영을 선택했다.

의료진은 CCTV 의무화로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도 미심쩍어했다.

7일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25일~10월 28일 사이 최근 2년 이내 전신마취 또는 의식 하 진정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환자 1천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이들은 49.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실제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 내받지 못해서'(33.5%)와 '제도를 몰라서'(28.1%)가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7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촬영 후에는 '안심됐다'는 긍정적 정서가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실 CCTV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도의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7일~11월 13일 조사한 결

과,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수술실 93%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들은 CCTV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72%가 부정적인 것으로 답했다.

이들은 또 제도 운용 방식을 두고 '수술실 CCTV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41.0%)는 개선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현재처럼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24.0%), 'CCTV 불필요·신뢰 관계가 더 중요'(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 제도 운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조사 당시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의료진 10명을 따로 인터뷰했을 때 7명(70%)이 2023년 9월 설치 의무화에 맞춰 CCTV를 도입했지만, 의무화만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의료인은 "의무화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학교로 따지면 참관 수업을 매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자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에도 수술실 CCTV 활용의 긍정적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할 균형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금융전문가의 모기지 팁



- Mortgages
- Remortgages
- Buy to let Mortgages
- Commercial Mortgages
- Home Insurance

■ 브릿지 론

새 주택을 구매하는데 기존 주택이 시간에 맞춰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택 신축에 자금 필요한 경우 브릿지 론은 단기적으로 좋은 자금 융통 방법이 됩니다.

■ 주요 상담 내용

- ✓ 신규 모기지 혹은 리모기지
- ✓ 주택 용도별 모기지
 - 본인 거주용 주택 (Residential)
 - 임대용 주택 (Buy-to-let)
 - 상업용 건물 (Commercial)
- ✓ 대출 기준 (Criteria)
 - 단기 비자 소유자인데, 모기지 가능한지? (VISA Status)
 - 나이 제한에 대하여? (Age)
 - 은퇴 후 모기지, 집을 팔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Later Life Mortgage)
 - 기타 모기지 관련 대출기준에 대하여?
- ✓ 나의 모기지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나?
 -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 (Maximum Loan to Income)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금액 (Maximum Loan to Value)
 - 임대 수입 대비 대출 가능금액 (Maximum Interest Coverage Ratio)
- ✓ 원리금 상환으로 할까? 이자만 내는 것으로 할까? (Repayment or Interest Only)
- ✓ 고정금리로 할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할까? (Fixed Rate or Tracker Rate)

■ 홈 인슈어런스

홈 인슈어런스는 건물 보험 (Buildings Insurance)과 집안의 가구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보험 (Contents Insurance)로 구성됩니다. 화재, 도난, 특정 자연 재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건물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일반적으로 해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기지 서비스

전문 컨설턴트가 귀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2년 또는 5년의 고정 금리 품목이나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의 트래커 금리 품목을 찾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리버전 금리(Reversion Rate)?

기존 모기지의 초기 고정 금리 기간이 끝나면 대출 은행의 변동 금리(Standard Variable Rate)로 전환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리모기지 시기를 놓치고 높은 변동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FCA 등록된 한국인 어드바이저가 도와드립니다.

1. 폭넓은 대출 기관들의 여러 조건들을 살펴서 최적의 품목을 찾아 추천해 드립니다.
2. 모기지와 관련된 개인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3. 준비 및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SB Mortgage & Financial Services

Mr. SB Bae / Mortgage & Protection Adviser

상담·문의 전화 : **07904 571782** (WhatsApp available)

이메일 : **baesbuk@gmail.com**

Your home may be repossessed if you do not keep up repayments on your mortgage. Buy to Let Mortgages are not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Some forms of Commercial Lending are not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Sang Bae Bae trading as SB Mortgage and Financial Services is an appointed representative of The Whitechurch Network Limited which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is is approved by In Partnership FRN 190859 Apr 2026)

런던 뮤지컬 티켓을 예약하는 방식을 바꾸는 차세대 티켓 플랫폼

이제부터 개인도 그룹 할인 티켓 가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MING SOON www.togetix.com

ILOVESTAGE는 개인 여행객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웨스턴드 공연 티켓 플랫폼을 구축하여 런던 뮤지컬을 해외 관객들과 연결해왔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 PRESENTED BY ILOVESTAGE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병원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퀄리티 높은 의료서비스를
휴람 혜택 적용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진-진료-수술-
치료까지 휴람이 원스탑 서비스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한국문의 : +82 (0)70 4141 4040
카카오톡 : 010 3469 4040 (kakao ID: huraamkorea)
이메일 : huraam@huraam.kr
홈페이지 : www.huraamkorea.com

미소 하우스 (하숙, 민박)

뉴몰든역 3분, 하이스트리트 1분 거리 넓은 단독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집 구하기 전, 귀임 전 잠시
깨끗하게 정리된 1인 욕실룸~가족룸, 세탁 서비스
신선한 재료 사용 맛있는 아침 저녁 한식, 욕실용품
카드결제 가능, 홈 둘러보기 : www.misolondon.com
카톡 문의 : **misohouse** ☎ 0782 333 6807

11+, GCSE, A Level 수학과외

11/13/16+ 명문 공/사립 입학시험준비
GCSE, A Level, Further math
STEP, MAT, TMUA 최상위 명문대 입학시험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20년 이상 경력
☎ 07958 677 211

PORTFOLIO DEVELOPMENT & REFINEMENT
Art, Design & Technology
11+ · GCSE · A-Level · Foundation · BA · MA
영국 미대·아트스쿨 포트폴리오 전문 지도 인터뷰 준비
및 포트폴리오 리뷰 (1:1 맞춤) 영국 선생님
실제 입시 기준에 맞춘 실전 피드백 제공
Experienced Tuition in English
neryhs@hotmail.co.uk
07990913410
한국어 상담 가능

조은 하숙 (구 이모네)

뉴몰든역 도보 2분 거리. 런던 시내 접근 매우 편리
아침 저녁 최고 맛있는 한식 제공
1인실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한 룸 완비
장·단기 출장 / 연수 / 가족 여행 환영
☎ 07817 921 280 | 카톡 : leedh022769

GCSE A level 수학

영국 수학교사 자격증 PGCE 보유 (영국 중등학교 교사경력)
지도학생들 UCL 비릇 명문 러셀그룹 대학교 합격시킨 경험
캠브리지대, 임페리얼 칼리지 지원 및 입학시험 지도
취약 부분 맞춤 지도, 시험 테크닉 제공
수업은 영어나 한국어로 온라인 진행
☎ 07508 218465 (여)

런던건축
City & Guilds
ACCREDITED
고객맞춤형가계/영국표준품질/철저한 사후관리
Fully Insured (10 Million)
·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 신축/중축/변경 · 설계/디자인/카운실 허가
· 증명서 발급/설치/수리(가스/보일러/전기/언더히팅/에어콘)
· 인테리어/리퍼비쉬
Mobile. 07515 738 777 dyk8855@gmail.com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갈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역 10분, 집앞버스 213, K1,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house5

KS3, GCSE, A-Level 수학 과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UMIST 전자 통신 공학 석사
선생님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을
각 보드별에 맞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 지도 경험 10년 이상. (Zoom 수업 가능)
☎ 07846 350 561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I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Edexcel, OCR, Cambridge, WJEC).
Key stage 3, 13+ 준비, 식스폼 학교 입학시험 준비.
따라가기 힘든 Y5-Y11 학교 진도와 숙제 바드림.
런던대학 킹스컬리지 과학교육학 석·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SOUL
estate agents
BRITISH PROPERTY AWARDS
2019-2026
GOLD WINNER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성악·음악이론 집중 레슨

서울대 음대 졸업
영국 왕립음악원(Royal College of Music) 석사
ABRSM·예중·예고·음대 입시 전문 지도
찬양·합창·취미 성악도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지도자를 찾고 계신가요?
☎ 0791 914 0478

클라식 기타 레슨

영국에서 MA 수료,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
Trinity, ABRSM, Music Theory ARSMC (beyond
Grade 8 level) 시험 준비. 취미를 위한 맞춤 수업.
연주 테크닉 향상. 온라인·오프라인 방문 수업.
☎ 07538 081 541

생활광고 안내
1회: £15
2회: £25
3회: £30
이메일로 광고 내용, 게재 횟수,
6회: £50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8회: £65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12회: £90
kowekly@kowekly.co.uk
24회: £150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전문통역 /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코리아 위클리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아 위클리리는 광고주의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의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알고리즘의 풍요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②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감옥 새벽의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피부 깊숙이 파고든다. 영국 중부, 셰필드의 차가운 공기가 창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잠든 나의 뺨 끝을 스칠 때면 비로소 하루라는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곤 한다. 그러나 이 거룩한 새벽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나의 몸짓은 지독하게도 세속적이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침실에서 나의 손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본능적으로 머리맡의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아낸다.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요한 어둠을 찢고 솟구치는 그 사파이어 빛 광채. 그것은 나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킴과 동시에, 나의 영혼을 유혹의 바다인 ‘유튜브’라는 미궁 속으로 순식간에 끌어당긴다. 그 눈부신 사각형 틀 안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영상의 목록들을 가만히 응시해 보고 있자면, 그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내가 어제 남겼던 은밀한 관심의 파편들, 무심코 머물렀던 시선의 흔적들이 정교하게 직조되어 내 앞에 차려진 ‘맞춤형 만찬’이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갈망하던 것들을 내 눈앞에 대령한다.

보이지 않는 손

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중 하나를 클릭한다. 감각적인 이미지와 소리가 나의 뇌를 자극하고, 일시적인 흥미가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하나의 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영상은 기다렸다는 듯 자동으로 재생되며, 나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디지털의 연쇄 속에서 나의 주체적인 의지는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소중한 한 시간



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간 뒤이다.

이 허망한 기분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은 간데없고, 오직 파편화된 이미지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부유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무서운 정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였다면, 현대의 알고리즘은 그보다 훨씬 은밀하고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일상을 난도질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에 응시하고, 어떤 선물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누구와 마음을 나눌지까지 그 차가운 연산 장치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믿으며 선택의 권리를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꼭두각시 줄에 매달려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필터 버블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 2005년경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 유튜브라는 신세계가 태동하던 그때, 우리는 지

식의 바다를 직접 항해하는 개척자였다. 원하는 보석을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능동적인 탐험의 즐거움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영리한 집사가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입맛에 딱 맞는 정보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타난다.

이 눈부신 편리함 뒤에는 가혹한 대가가 도사리고 있다. 알고리즘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의 과거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내가 멈췄던 찰나의 초 단위 기록까지 학습하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나를 인도한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지평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는 초라한 영혼을 발견했다. 알고리즘이 미리 걸어 놓은 익숙한 것들만을 소비하는 사이, 나의 세계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딱딱하게 고착되고 있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체’였다.

이 비극은 목양의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해 줄 설교에만 귀를 열고, 각자의 ‘거품’ 속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아집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진리의 풍성

한 다양성은 소멸하고, 거대한 신앙의 균형은 무참히 깨어져 버렸다.

확증 편향의 늪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절의 흥분은 ‘객관적인 현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검색 엔진은 나의 이전 기록과 위치, 관심사에 따라 저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정보는 철저히 개인화되었고, 우리는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효율성’이라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다.

하나의 검색어에도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마주한다. 각자의 화면 속에서 자신이 본 것만이 진실이라 믿으며 서로를 향해 증오의 화살을 쏘아 올린다. 이것이 바로 ‘필터 버블(Filter Bubble)’의 공포이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를 투영하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일그러진 환영’만을 진실인 양 보여준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디지털 괴물이 우리의 ‘분노’와 ‘자극’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깊이 있는 성찰은 묻히고, 대신 증오의 언어만이 무성해진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채, 알고리즘이 직조한 증오의 갑옷을 입고 가상의 전쟁터로 달려 나가고 있다.

자유라는 이름의 화려한 족쇄

디지털의 신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권을 약속했지만, 배리 슈워츠(Barry Schwartz)의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이론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결정 장애와 피로감을 느끼며 만족도가 낮아지고 불행해진다. 결국 지쳐버린 우리는 영혼의 주권을 기꺼이 알고리즘에게 양도하며, 추천 목록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 이것은 거대한 순환의 감옥이자,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구속하는 ‘자유’라는 이름의 족쇄’다.

이 차가운 알고리즘의 지배는 우리의 신앙마저 집어삼키려 한다. 참된 신앙은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불편한 진리 앞에서 서는 일이며, 주

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항복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우리를 결코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 안락함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책망하는 불편한 성경 구절에는 시선을 돌리고, 오직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만을 찾아 헤맨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의 경고처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가려운 귀’를 가진 현대인의 비극이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씨름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의 파도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 한 달만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스마트폰 검색창을 닫아보자. 즉각적인 답 대신 그 막막함 속에 머물며, 영혼의 가장 고귀한 기능인 ‘사유’를 회복하자. 야곱이 압박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를 놓지 않았던 그 치열한 씨름을 회복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생략해 버린 그 ‘비효율적’인 과정이야말로 경건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는 주님의 선포를 기억해야 한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흔들지만,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자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나의 필터 버블을 깨뜨리고, 나를 책망하는 불편한 목소리에 귀를 여는 용기를 내야 한다.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매끄러운 추천을 거절하고, 스스로 진리의 바다를 항해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는 알고리즘의 시대이자, 기계적 욕망의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명하신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한 산을 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남겨진 가장 위대한 영적 과제이다.

당신은 알고리즘이 깔아준 매끄러운 길만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칠고 험할지라도 생명이 약속하는 그 ‘다른 길’을 향해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가겠는가?. 선택의 권한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잠시 끄고,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참된 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셰필드의 작은 서재에서, 나는 당신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 나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린다.

박상도 목사

셰필드한인교회 담임



1991년 창간

www.koweekly.co.uk

뿌리깊은 나무처럼 성실하게 변함없는 오랜 친구처럼 든든하게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

코리안위클리는 35년째 성실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리안위클리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벗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동반자 - 코리안위클리

코리안위클리





재영한인교회연합회

KCA in the UK

Hanbeel Church 런던한빛교회

바른 신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주일예배

1부 : 10:00 am (한빛센터)
2부 : 2:00 pm (본당)
유치부 : 2:00 pm (본당)
유초등부 : 2:00 pm (본당)
중고등부 : 2:00 pm (한빛센터)
청년부 : 4:30 pm (한빛센터)

주중예배

수요예배 : 8:00 pm (한빛센터)
새벽예배 : 5:30 am (한빛센터)
수요토들러그림 : 10:00 am (한빛센터)

담임목사 : 김동운

홈페이지 : www.hanbeel.org / 전화 : 0208 546 3600
한빛센터 : 122 London Rd., Kingston, KT2 6QJ
본당 : 한빛교회/KMC, 13 Fairfield South, KT1 2UJ

아름다운교회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주일예배: 오후 2시
새벽예배: 6:00 am (월~금)

새벽예배는 줌으로
ID: 840 7687 8395
PW: 024086

담임: 백장현 목사
bkclondon@gmail.com
07748 500 038

www.bkclondon.com

런던센트럴순복음교회

교회 4대 목표 십자가 복음과 사랑·영향을 위한 중보기도·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주대 교회의 회복

예배장소

The Borough Welsh Congregational Chapel
90 Southwark Bridge Rd., London, SW1 0EX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이상보

문의 07449 767905

홈페이지 www.londoncentralchurch.org



구세군 런던한인교회는 다양한 문화(Inter-Cultural Church)와 세대(Inter-Generational Church)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교회입니다.

주일예배: 오전 11시
109 Kingston Road, London SW19 1LT
wimbledon@salvationarmy.org.uk



Weybridge White House

말씀과 기도의 집

The WCRD and Prayer house

주일예배 오전 11시

담임: 김호근 목사

주소: 77 Heath Road, Weybridge, Surrey KT13 8TN
E-mail: wphlondon@hotmail.com
문의: 장순영 선교사 07917-726-839

웬블던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전 10시 30분
The Prior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Queen's Rd, London SW19 8LX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센트럴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후 2시
Welsh Baptist Church, 30 Eastcastle Street, London, W1W 8DJ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런던 주찬양교회

Praise The Lord Church of London

1.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2.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3. 성령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4. 전도, 헌신, 봉사로 하나되는 교회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담임 목사 : 김주경
■ 문의 : 07528 295 356 / ukjkm11@gmail.com
160 Green Lane, Morden, Surrey SM4 6SR

옥스포드 선교교회

Oxford Mission Church

주일예배: 10.30am
장소: Wycliffe Hall Chapel
주중예배: 수, 금 7.30pm
새벽예배: 매일 6am

담임목사: 천계상
oxfordmissionchurch@gmail.com
www.oxfordmissionchurch.wixsite.com/home

런던벤틀교회

BETHEL CHURCH OF LONDON

주일예배 : 11AM
새벽예배 (월~금) : 6AM
수요예배 : 8PM
저녁예배 (일, 화, 목) : 8PM

문의 : 07584 027756 이승복 담임목사
Unit 1, 167A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런던새중앙교회

The Love Of Jesus

주일예배 : 오후 2시
새벽기도 : 오전 6시
화요성경공부 : 오후 1시

이메일 : incc@naver.com
전화 : 07790553317
예배장소 : St. John's Church,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RX
담임목사 : 황형식

런던영광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후 2시
주일학교 : 오후 2시
새소식반 : 금요일 오후 3:30~6:00
Mothers & Toddlers : 수요일 10:30~12:00

연락처 : 안병기 목사 / 김경순 사모
revbkahn@gmail.com / mksahn@gmail.com
07990 760354 / 07747 325242

On a rainy day Jesus will be your umbrella!

글로리아 센터

정소년: 10시, 청년 5시 (High St, New Malden, KT3 3PY)

교회

장년 & 주일학교 교사 (39 Ewell Road, Surbiton, KT6 6AF)

Gloria Church
조성영 목사 07914069732

런던 [시내, 센트럴] 예수비전교회

London Jesus Vision

예배: 주일 오전 11시 /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Paget Christian Centre
18 Randell's Rd, London N1 0DH

지하철: St. Pancras Int. (유로스타), Kings Cross역 도보 7분 교회 주변 무료 주차 가능

담임목사: 이희영
카톡 ID: revheui
<http://ljvc.org>
020 8346 2070 / 07828 267762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

예배장소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 Castle Street, Cambridge CB3 0AH (주차장은 2 St Peter's Street, CB3 0AH)

예배시간 :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 김태규

문의 : 01223 573275 07837 840294
www.cambridge.onmam.com

웬블던한인교회

Wimbledon Korean Baptist Church

예배장소 : Wimbledon Baptist Church
129 The Broadway
Wimbledon SW19 1QJ

예배시간 : 새벽기도 online → 오전 6시(화~금)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격주)
주일예배 → 오후 2시

문의 : 권종현 목사
enochwith@yahoo.com

런던순복음교회

LONDON FULL GOSPEL CHURCH

"예배가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 주일예배 (한국어 / 주일학교 / 인터네셔널)
1부 : 오전 8:30 | 2부 : 오전 10:30 | 3부 : 오후 1:30
유아, 유초, 중교 : 오전 11시 | 인터네셔널 : 오전 9시

· 주중예배 (수요 / 금요 / 새벽)
수요 : 저녁 7:30 | 금요 : 저녁 8시 | 새벽 : 월-금 오전 6시

· 담임목사 김용복

www.lfgc.co.uk | 0208 944 6781
lfgcuk0691@gmail.com | [karra0510](http://www.karra0510.com)
37 West Bamed Lane, Raynes Park, SW20 0BL

리버풀한인교회

Liverpool Korean Church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 주일예배 : 오후 1시
· 담임목사 : 지성구
· 카톡ID : ukm0691

· 예배장소 : St Philemon's Church
78 Admiral St., Toxteth, Liverpool L8 8BR

· 인스타 : @liverpoolkoreanchurch.org
· 홈페이지 : liverpoolkoreanchurch.org

유럽기도선교

Prayer Mission Europe

복음에 빛진 한국 교회가 겸손, 희생, 섬김의 마음으로 영국과 유럽을 위해 기도로 진행되는 선교사역

담당사역자 : 김남진 목사
07547 373 864

런던새로운교회

London New Church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 주일예배 : 오후 2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 금요집회 : 저녁 8시

· 담임목사 : 권순신
· 전화 : 07795 467248
· 홈페이지 : www.gp21.org

Emmanuel Church, Dudley Drive, Morden, SM4 4RJ

유럽 최대 한인타운의 정체기, 'K-POP'으로 돌파구 찾는다

제3회 New Malden K-POP Awards를 준비하는 김기영 조직위원장을 만나다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런던 남서부의 평범한 거리인 뉴몰든 하이스트리트가 유럽 K-POP의 중심지로 변신한다.

평소에는 한인 식당과 슈퍼마켓, 카페들이 즐비한 동네지만, 이날만큼은 수천 명의 관객과 1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문화의 장이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New Malden K-POP Awards'.

겉보기에는 활기찬 음악 축제 중 하나로 보이지만, 이 무대 뒤에는 뉴몰든이라는 커뮤니티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기획자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뜨거운 비전이 담겨 있다. 행사를 이끄는 김기영 조직위원장을 만나 그가 꿈꾸는 뉴몰든의 다음 50년에 대해 들었다.



“50년 역사의 뉴몰든, 이제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 땅이 낫설던 시절부터 한국인들이 하나둘 정착하며 만들어진 뉴몰든은 오늘날 '유럽 최대 한인타운'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얻었다. 1세대의 땀과 노력이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김기영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뉴몰든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뉴몰든은 영국 내 한국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한류는 주류 문화가 되었고, 뉴몰든에 오지 않더라도 런던 중심가 어디서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이내 솔직한 진단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몰든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식당과 마

켓만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의 중심도 점차 런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죠.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한인타운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어진 대안에서는 확실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평범한 거리, K-POP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더하다

김 위원장은 뉴몰든의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뉴몰든은 킹스턴처럼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것도, 리치몬드나 워블던처럼 세계적인 공원이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연례적으로 열리는 곳도 아니다.

관객력이 찾아올 만한 뚜렷한 랜드

마크가 없는 평범한 외곽 도시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만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최대 한인타운'이라는 역사성과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를 넘어,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비하기 위해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K-POP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가장 폭발력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아티스트의 노력, 팬덤의 결속력, 그리고 한국의 기획력이 집약된 최고의 문화 산업입니다. 이에너지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 뉴몰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외부에 앞서 우리부터 제대로 즐겨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3회 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커뮤니티 내부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그동안 뉴몰든에서 열린 일부 K-POP 행사들이 오히려 K-POP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 뉴몰든에서 보여준 K-POP 관련 행사들은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바쁜 정착 과정에서 K-POP의 급격한 발전상과 세련된 예술성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대 한인타운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가끔 열리는 단발성 행사들이 오히려 K-POP의 진짜 매력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뉴몰든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먼저 K-POP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문화적 안목과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들부터 K-POP이 진정 무엇인지 느끼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당당하게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변 현지인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겉치레뿐인 축제가 아니라, 뉴몰든 스스로 K-POP에 대한 금지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뉴몰든에서만 New Malden Kpop Awards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댄스 페스티벌에서 '진짜 무대로'

사실 이 행사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췄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첫해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랜덤댄스 위주의 이벤트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K-POP의 본질과 에너지를 담아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5년 2회 대회부터 과감하게 컴페티션(경연) 형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공식 상금과 트로피를 도입했고 퍼포먼스, 가창력, 무대 연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적인 무대를 구축했다.

“참가자들의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단순히 춤을 따라 추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무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거웠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축제의 방향성이 맞았다는 것ですよ.”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니까요”

문득 궁금해졌다. 왜 개인이 이토록 많은 시간과 사재를 들여가며 3년 연속 이 큰 행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한인회나 정부 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한 하이스트리

트의 침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제 가족이 살고 있고, 앞으로 제 아이들이 자라날 터전이니까요.”

그는 어떤 직책이나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저 지역 사회의 쇠락을 지켜보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으로서 먼저 행동에 나섰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시작 물꼬를 터야 변화가 생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하다 보면 결국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 믿습니다.”

뉴몰든의 미래, 영국 속 '한국 문화 수도'를 향해

김 위원장의 시선은 올해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는 이미 10년, 20년 뒤의 뉴몰든을 그리고 있었다. 5년 안에 수만 명이 모이는 유럽 최고의 K-POP 축제로 키워내고, 장기적으로는 뉴몰든에 복합 문화 공간인 'K-Art Stadium'을 건립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다.

“단순한 공연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학교, 체육시설, 문화 예술센터가 어우러져 차세대 동포들과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복합 단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뉴몰든을 기억할 때 '한국 식당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영국 속 한국 문화의 수도'로 떠올릴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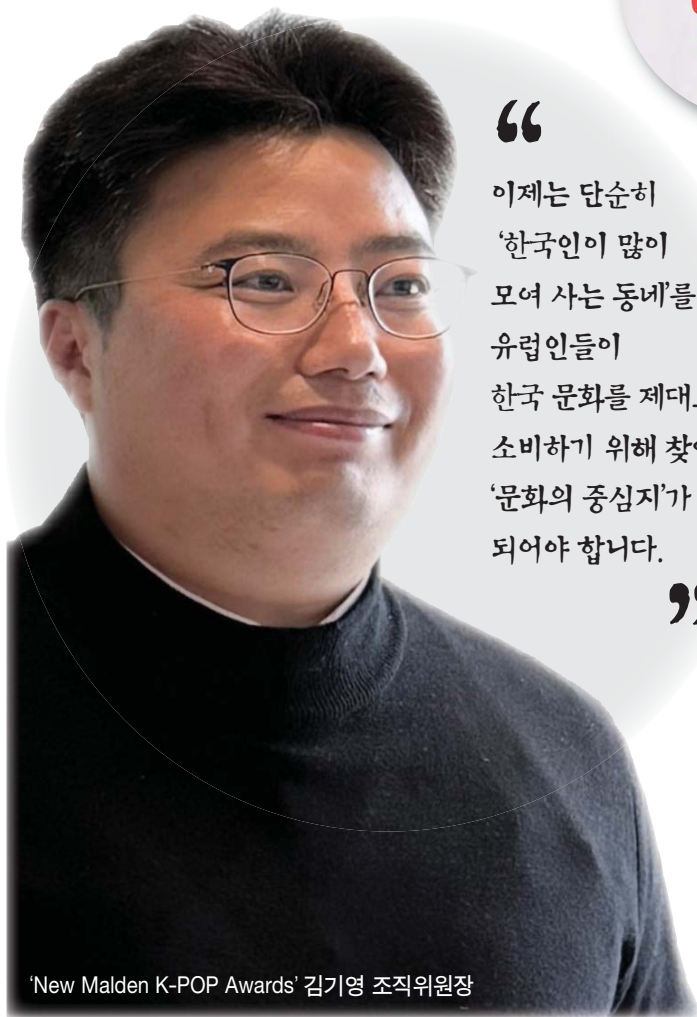
오는 8월 28일과 29일 펼쳐질 제 3회 New Malden K-POP Awards는 단순한 이틀간의 축제가 아니다. 한인타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새로운 50년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사진 및 기사 제공: www.newmalde.org



“
이제는 단순히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를 넘어,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비하기 위해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New Malden K-POP Awards' 김기영 조직위원장



2026
BRITISH KOREAN
WAR VETERANS DAY

재영 한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 타국에서 싸워주신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행사는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한인 사회, 그리고 영국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우리의 기억과 감사가 참전용사 여러분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6월 27일 (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소

St Paul's Gardens
153 Hammersmith Road
London W14 0QL



프로그램

- 추모 및 기념식
- 참전용사 사진 전시
- 제2회 참전용사 감사편지
대회 시상식
- 문화공연
- 오찬 및 교류



함께하는 시간

참전용사, 한인 사회,
영국 지역사회가 함께
감사와 우정을 나눕니다.



기억과 감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문의 info@korvauk.org
07421 50379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영국지회
KOREAN VETERANS ASSOCIATION UK